



순창군이 동서양의 발효문화 체험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이 성과를 인정받았다.

순창군, 발효사업 성과 인정

지역발전 우수사례 선정... 기관표창·내년도 재정 인센티브 확보

순창군이 동서양의 발효문화 체험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이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최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에서 '맛의 한국 동서양 발효문화 체험 연계 협력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기관표창과 함께 내년도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

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김형산 팀장이 사업성과를 인정 받아 개인 유공표창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전국 109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해 지난 4월부터 대면평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 13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은 홍보책자로 발간돼 전국에 전파된다.

'맛의 한국 동서양 발효문화 체험 연계협력사업'은 순창의 장류와 입실의 치즈를 활용해 동서양의 발효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음식을 주제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1억여원이 투자됐다.

특히 순창은 세계발효마을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순창에서 회의를 개최해 동서양이 발효음식 문화에 대해 교류하고 공동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2013년과 2014년도에 추진한 세계발효 마을 연대회의에는 일본, 미국, 헝가리, 스페인 등 11개국 4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학술 행사와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또 순창은 루마니아 로만시와 발효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상태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해 진행된 세계소스박람회 행사에서 다양한 발효음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지원활동도 진행해 우리 전통장류의 세계화에 노력한 공도 인정받았다.

또 상시적으로 순창발효음식 체험이 가능하도록 발효음식 체험관도 조성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운영을 시작해 순창발효 음식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은 고추장을 비롯한 전통장류의 메카로 장류사업을 넘어 소스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발효와 관광을 융합한 사업 추진에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멜론'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수상

부드러운 육질에 좋은 당도에 높은 평가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고창멜론'이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멜론으로 인정받게 됐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은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주최·주관하고 조선일보,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지도, 독창성, 만족도, 신뢰성 등을 두루 겸비한 금년도 최고의 상품을 선정, 발표하는 상이다.

이번 상은 사전 기초 조사를 통해 후보 상품을 선별 한 후 소비자의 직접 투표와 산학전문가의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로 최종 선정됐다.

'고창멜론'은 넓은 평야와 맑은 하천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주야간 온도차, 게르마늄 등 미네랄을 함유한 황토와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육질이 부드러우며 15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멜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그 명성을 확인한 셈이다.

고창군은 그동안 '멜론 명품화단지 육성'을 위해 읍면별 작목반과 연구회를 조직하여 공동선별, 포장 및 출하로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로 품질을 유지했다.

또한 정기적인 재배기술 교육과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한 농가별 1:1 현장컨설팅 추진, 그리고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2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일본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고창황토멜론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탐과제 단지로 선정되어 2014년 농촌진흥청 탐과제 부문 최우수 단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농촌진흥청의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 사업에 선정 되어 우수한 품질 덕분에 까다로운 홍콩 과일시장에 첫 수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도시 백화점 등에서 러브콜이 쇄도, 공급처를 다양화함으로써 과잉공급에 의한 농가 수취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했으며 경매시장에서도 타 지역 멜론에 비하여 8kg/1박스에 5,000~7,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에는 수박, 복분자, 풍천장어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양한 특산품들이 소비자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 '고창멜론'이 또 하나의 명품 고창 특산물로 인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홍보 마케팅으로 '고창멜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K-food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멜론'은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조선일보 지면과 조선닷컴 온라인뉴스 및 배너, 전국 대도시 5개 지역 옥외광고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되며, 앞으로 고창멜론 홍보 및 마케팅 시 히트상품 대상 공식 엠블럼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사매119지역대 청사 준공식 가져

신축 경과보고·유공자 표창 등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7일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에서 이선재 소방본부장, 이환주 남원시장, 강용구·이상현 도의원, 남원시의원, 지역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 및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매119지역대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사매119지역대 신축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 축사, 부대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매119지역대는 1986년도에 건축된 사매면사무소 부지 내 차고지를 사용 한 이래 30년이 지나면서 청사노후와 공간협소로 사매 등 남원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청사 이전 문제는 사매면민은 물론 남원시민의 염원이었다.

이번 청사 이전은 사매, 덕과, 보절, 대신 등 남원시 북부권 4개면 뿐만 아니라 입실군 오수면, 지사면 주민들에게도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남원소방서 이홍재 서장은 "남원시 민들에게 소방수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각종의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안전의 제일선 파수꾼이 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사매119지역대는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298.62㎡(약 90평), 총 5.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사를 완공했으며 신속한 급급서비스, 화재예방 및 화재초기 진압활동 등을 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으로 식도락마을 여행했어요'

기차 이용 방문객 줄이어... 체험 등 즐겨

고창군(군수 박우정) 식도락마을에 기차를 이용한 단체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고창군 식도락마을에는 코레일 이트레인(e-train)이용 여행객 350명이 정읍역에서 하차하여 9개 마을로 나뉘어 각각 식도락 마을 9곳(마령마을, 향산마을, 조동마을, 송림마을, 하전마을, 증여마을, 연동마을, 반암마을)에 방문해 마을의 향토음식을 맛보고 체험 활동을 가졌다.

식도락 여행객들은 이후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품을 구입하고 고창군의 주요 관광지인 공음 학원농장, 상하농원, 구시포해수욕장, 선운사를 관광하며 고창군을 맘껏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다. 고창군은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단장 이승호)을 통해 12개 식도락마을 관광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 이승호 단장은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은 지난 5월 19일 코레일 정읍본부역과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열차를 이용한 단체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번 방문에는 12개 식도락마을 중 9개의 마을이 참여했으며 큰 규모의 단체관광객 수용으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도 식도락마을을 전국에 알리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순창군이 오는 30일까지 '2016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라농정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2016년 하반기에는 가을무, 가을배추로 선정하였고 2017년부터는 품목을 확대 할 계획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는 품목당 1,000㎡ ~ 10,000㎡이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 접수 창구에서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법인(농협 포함)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마케팅계 전화 650-5147,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 순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전화 653-7265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에 사랑 쌀 나눔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남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용현)는 지난 6일 소내 강당에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김영기, 법사팀위원 남원지역연합회장 노동식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 쌀 나눔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법무부 법사팀위원 남원지역협의회 및 남원보호관찰소 원호협의회로부터 백미 38포(20kg, 150만원)를 후원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26명에게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 쌀을 후원해 주신 법사팀위원 및 원호위원회에 감사함을 표시했고, 지역 사회 내 어렵게 사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다 깊은 애정을 가져 달라"고 격려했다.

김용현 소장은 김영기 지청장에게 현 건물의 노후화로 내년 2월경 현재 부지에 신청사를 착공하여 12월경 준공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으며, "이번 사랑 쌀 전달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경찰, 명절 치안 확보위한 특별방범활동 총력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과출소에서는 추석 전·후 범죄예방을 위한 사안 제정으로 평온한 명절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2주간 특별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5일부터 1주간 진행되는 1단계 특별방범활동 기간에는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예금을 방문 금융기관 종사자 상대 금융기관 안전수칙 등 방범 예방 홍보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방범시설 등 자위방범에 대한 방범지도를 실시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는 적극 개선 독려 및 상설시장 등 다중밀집장소에 진출하여 노인사기 및 소매치기 등 범죄예방 홍보, 마을회관 방문 추석전후 낚치기,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별방범활동 2단계에는 금융기관 주변 목검문 및 집중 순찰활동 실시, 자율방범대 등 협력방범단체 적극 참여를 통해 치안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평온한 명절 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용자와 종사자를 격려하고 정을 나눴다.

박우정 군수는 7일 노인요양시설인 고수면 '참살이'와 부안면 '야고버의 집'을 찾아 시설 어르신들과 따뜻한 명절인사를 나누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했다.

아울러 부안면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 가정과 가정위탁세대 중 결연아동 가정을 차례로 방문해 격려했다.

박우정 군수는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이웃의 정이 더욱 그리워지는 소외계층을 위해 군민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오곡백과가 풍성한 시기인 만큼 어려운 이웃과도 마음을 나누는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모금회와 함께 불우이웃 90세 이상 장수노인 및 장애인가정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5100만원의 성금을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이색 방범활동 '눈길'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순화파출소가 명절 전 이색 방범활동을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관내 금융기관 5곳, 현금 다액 취급업소 8곳을 직접 방문하여 방범용 CCTV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와 출입문 시정장치를 점검하고 점검하였으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순화파출소 자체 시책으로 명절 전·후에 발생하는 금융기관 내 낚치기 사건에 대비하여 주변에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명절기간 내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관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던 가정 중 고위험군 재발 우려가정을 선정하여 사전·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 담당경찰관이 방문하여 연휴 중 철저한 문단속과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우유·신문 배달 중지하고 이웃 간 전단지 제거, 예약순찰 등 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인규 순화파출소장은 "경찰서·자율방범대 등과 협력차원으로 가시적·다목적 순찰 등을 통하여 순창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어촌공사 감사초청 청렴 특강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 감사(감사 유한식)를 초청해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유한식 감사는 특강을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로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비리에 연루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진화된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청렴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농업인, 민간기업과 공정한 관계를 맺는 등 투명한 조직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감사는 이와 함께 국가 대행 사업에 관련된 정부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업이 되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